

< 성경칼럼 : 요한복음 열 일곱번째 수정판 >

요한복음 16 장이다. 성경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주제인 '성령' 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하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 성육신 사건,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모두가 신비스러운 이유는 '성령의 활동' 없이는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성령의 활동은 모든 것이 신비스럽다. 나의 구원에 관련된 '거듭남' 의 사건도 결국 신비스럽다. 요한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성령의 활동' 에 대해서 나이든 이즈음에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어 몇자 적어본다.

사도 요한은 16 장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16 장에서 요한은 그동안 3 장의 '니고데모' 의 대화 (3:5-8) 와 7 장의 '초막절' 절기 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7:37-39) 에서 조금씩 표현해 왔던 '성령' 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요한만큼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복음서는 없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기적을 포함) 성령의 사역이었다. 물론 포도주가 되게 한 것에서부터 (2:5-10) 니고데모에게 '거듭남' 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3:1-8), 수가성 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도 (4:5-15), 베데스다의 38 년된 병자의 고침을 통해서도 (5:5-9), 오병이어로 오천명을 먹이신 사건도 (6:4-13)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 내신 사건도 (11:43) 성령과 함께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극대화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건들을 기록해 왔다.

그렇다면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성령을 조명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 했을까? 이미 ‘니고데모’ 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밝혔듯이 성령은 바람과도 같고 (3:8) 수가성 여인의 갈급한 목마름을 채워 주며 (4:10,14) 더 나아가 믿는 자들의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 같다고 했다. (7:38- 39) 도대체 그가 말하려는 성령이 무엇일까? 성령은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그럼 느낄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속에서 꿈틀대는 감각 일까? (종종 ‘워치만 니’ 처럼 자신의 직감을 성령의 활동의 일부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모든 구원의 사역에서 ‘성령의 활동’ 은 제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서만 자신이 거듭난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내안에서 언제 거듭난지를 정확히 알아 맞춘다는 것은 사실 쉽지않다. 당신은 정말 언제 거듭났는지 정확히 알수 있는가? (이단인 구원파에서는 날자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진짜 구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을 모르면 구원은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계적 능력을 가진 인간이 무 한계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성령의 활동을 알아 보고 그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마출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자신의 손안에 둘 수 있다는 교만한 횡포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언제 어떻게 역사하고 활동 했는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워치만 니' 처럼 자신의 감각이나 직감을 믿는 다는 뜻이다. 필자는 거듭난 것은 확신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언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정확한 날자와 시간을 모른다. 거듭남이 바람과 같을 뿐이라는 것은 느끼지만 언제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요 1:33 절에서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세례’ 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해도

말이다) 그리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이 흘러 넘쳤는지 흘러 넘치고 있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난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내가 분명하게 말 할수 있는 것은 나를 꼬집어서 아프다는 것을 말 할수 있지만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어찌 꼬집어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자가 되면 자신의 거듭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자복한 그 날을 성령을 통해 거듭난 날이라고 믿기도 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 인간의 한계적 감정으로 유일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라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 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요한이 7장에서 성령을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7:38) 그리고 더 보충 하시기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셨다. (7:39) 이 말씀에서 성령이 무엇일까? 를 감지 할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다. 믿는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생수 (물)는 바람과 다르다! 물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다. 사람이 바람 없이도 살수 있지만 물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다. 성령은 바로 그런 거다. 성령이 없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지만 또 성령이 없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 성령은 결국 영원에 관한 문제를 제시한다. 결국 ‘성령’ 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요한은 그 생명에관한 성령이 '진리' 라고 간파한다. (16:13) 바람으로 표현된 '성령' 을 다시 '생수' 로 표현하며 결론적으로 성령이 '진

리' 를 알게하는 '진리' 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7 장에서 밝힌 믿는자들의 배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는 어떤 힘을 통한 극적인 변화를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진리' 를 의미한다. 그분이 '성령' 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근본 하나님이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다. (14:6)

종교 개혁이후 특히 '개혁주의' 라는 신학적인 틀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비주류로 밀어냈다. 그러면 개혁주의의 주류는 무엇일까? 당연히 '말씀' 이 강조 되었다. 지나치게 '말씀' 을 강조하다 보니 스스로 활동하지 않으시는 성령을 말씀안에 제한 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16:13-15) 성경이 밝혔듯이 성령은 절대 스스로 활동하지 않으신다. 역사적으로 '성령세례' 보다 '물 세례' 가 더 강조 될수 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물세례가 필요하다 해도 말이다) 가장 무지한 것은 성령을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성령을 기도만하면 다 얻을 수 있다고 마음먹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절에서 염불을 외우는 것과 크게 다를바 없다. 성령은 당신과 내 배에서 '생수의 강' 이 넘쳐 흐르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진리' 이며 진리 중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을 위한 것이며 미래에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 을 위한 것이다. 성령은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이 아니다. 성령이 장래의 일을 말씀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것을 뜻하는 것이다. (16:33)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의 영혼이 잠잠할 수가 없다. 성령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신사적이고 예의적이지 않다. 성

령은 조용하던 사람을 시끄럽게 만들고, 암전하던 사람을 열정적이고 분주하게 만든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세상에 도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 성령은 우리안에서 나도 모르게 조용하게 일어나지만 결국내 안에서 나를 묶어 두지 못한다. 이것은 삶에 유익이 되는 갈라디아 5 장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와는 사뭇 다르다. (갈 5: 22-23)

오늘날 진리이신 성령의 활동을 자제하고 억제한 개혁주의의 신학적 틀에서 벗어 나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성령의 역사로만 보는 오순절파의 광신적 신자로 살 필요는 없다) 성령은 세상의 유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하시며 성령의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진리’ 를 위해 자신을 드러내고 일어서며, 그 ‘진리’ 안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장래에 다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삶을 준비하는 선택된 삶을 사는 사람일 뿐이다. 아멘..!